

# 장애우, 비장애우 더불어 함께 가르치기

카렌 슈말츠 Karen Schmalz

미국 제네바 대학의 카렌 슈말츠(Karen Schmalz) 교수와  
기독교교인 은혜샘물학교 교장 박영주 교수,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김정호 교수,  
특수교육과 이숙향 교수가  
소외된 이들, 특수교육에 대해 말한다.

좌담자\_박영주 (동역회 실행위원, 은혜샘물학교 교장),  
김정호 (월드뷰 편집위원, 이화여대 교수),  
이숙향 (이화여대 교수), Wesley (IVP 고문),  
정나영 (은혜샘물학교 특수교사)  
번역\_박영주 / 사진\_신효영

**박영주: 반갑습니다. 교수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Karen:** 35년 전 저는 현재 몸담고 있는 제네바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기독교대학임에도 당시에는 모든 과목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 교육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이 실행되고 있지요. 약 17년 전 제네바대학의 특수교육과 개설에 동참하기까지 저는 먼저 아이티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2년간 가르쳤고, 플로리다에서도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 후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공부하게 되었고 공립학교에서 행동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쳤지요. 기독교학교가 아니더라도 저는 항상 기독교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기독교학교에서 기독교인들만 가르치는 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공립학교에서도 참된 기독교적 교육이 가능합니다. 내 신앙을 공공연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행동으로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즉 학생을 대하는 태도,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 수준 높은 수업, 업무 성과 등을 통해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다른 교사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교사들도 열정이 있기는 하지만 동기가 다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교사들은 구별되기 마련입니다. 기독교교사가 되려는 학생들은 교회나 신앙과 관련된 일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특히 교실에서 내려야 할 다양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박영주: 특수교육을 전공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Karen:** 사실 어린 시절에는 고아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알아볼 당시에는 미국에서 고아원이라는 체계가 사실상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임시 위탁 가족 제도를 통해 고아원이 아니라 가정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도록 시스템이 변한 것이지요. 그렇게 첫 번째 꿈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누구도 돌보지 않는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을 선택하게 되었고, 장애우들, 사람들이 쉽게 소외시키는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 일하게 되었지요.





**박영주:** 제네바대학은 사실 한국에 잘 알려진 곳은 아닙니다. 학교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Karen:** 제네바대학은 1848년에 세워진 역사가 깊은 기독교대학입니다. 남북전쟁 당시 흑인 노예들의 탈출을 돕던 지하철도 비밀결사(Underground Railroad) 조직의 일원이었고, 북미개혁 장로교회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교육 등의 전문 분야와 사회학, 신학 같은 인문 분야의 과정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이 통합된 강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수들은 자신의 강의가 얼마나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통합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임교수가 되려면 자기 분야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인 통합 논문을 제출해야 하지요. 또한 도서관에 다양한 분야의 통합 연구 자료들이 정말 많습니다. 참고로 저는 학습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기독교 세계관과 통합하여 연구하였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초중등 과정 연구들은 적지 않지만, 사실 학습장애를 가진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함에도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김정효:**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접근 방식과 세속적 방식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Karen:** 장애우 학생들에 대한 기독교교육 방식은 세속적인 방식과 다를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지, 어떻게 차이점을 드러낼 것인지를 늘 숙고하게 됩니다. 비기독교인들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독교 교육자들은 그 일의 동기와 의미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일치시킬 수 있어야 하니까요.

**김정효:** 저는 특수교육 자체가 대단히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외된 계층을 위한 일이니까요. 이처럼 특수교육은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적 원리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Karen:** 먼저 학생을 어떻게 보느냐 즉, 관점의 차이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얼마나 잘, 능숙하게 성취하는가에 따라 그들을 판단합니다. 성과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학생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말하는 좋은 학생이 아닐지라도, 세상의 잣대로 그들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저마다 한 영역을 맡고 있는데, 장애우 학생들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들을 잘 보살필 뿐 아니라 그들이 기여할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발휘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사람들은 장애우들을 보살피려고만 합니다. 물론 좋은 일이지요. 성경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단순히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이가 아니라 교회의 몸 된 지체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게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사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박영주:** 미국의 많은 기독교학교에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아무래도 재정적 부담 때문이겠지요?

**Karen:** 물론 재정적 요인이 크기는 합니다. 특수교육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제가 통합교육을 하면서 배운 바에 의하면 차별화된 수업에 꼭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접근할지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일반교사도 통합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초등교육 전공자들이 특수 통합 교육 자격증도 같이 받도록 법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자기 학급 뿐 아니라 장애우 학생들을 받아들여 가르칠 수 있게 하였지요. 물론 이런 경우 특수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시스템을 환영합니다. 일반 교사들이 장애우 학생들에 대한 훈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들도 장애우들을 위한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장애우 학생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보호와 훈련, 의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추가적 도움이 주어진다면 일반적인 교육 환경에 잘 적응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우 학생들은 기독교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기독교학교들이 이러한 통합 교육을 위해 교사들을 훈련해야 하며 차별성 있는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장애우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학교에서 지적 능력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이숙향:** 저는 일반 학급의 기독교사들이 통합 교육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교과목을 장애우에게 적합하도록 재구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일반교육 전공 학생들에게 최소한 한 과목의 특수교육을 공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박영주:** 사실 저는 이번에 안타까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겨울 학기에 특수아동 통합 교육과정 재구성 과목을 가르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신청자가 거의 없어 폐강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사들이 장애우들을 어떻게 통합할지 논의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신념 하에 신설한 과목이었는데 말이에요. 각자 개인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번 무관심에 저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aren:** 기독교사들에게 이 분야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통합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교사들에 대한 장애우 통합 수업 훈련을 더 많이 제공하다 보면 상황이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미국의 경우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점차 좋아지고 있어요. 일반 학급, 특수 학급을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한국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질적으로 우수한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장애우와 일반 학생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우 학생을 잘 훈련시켜서 하버드에 들어가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우 학생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이란 그들을 최대한 도와 그들이 독립적으로 일반 사회에 잘 적응하고 기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가진 은사와 재능이 이 사회에서 정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Wesley: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계신가요?**

**Karen:** 한 가지 예로 인턴십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학생들은 일반 초등교육 및 특수교육 인턴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인턴 과정의 학생들은 학기 중 5과목을 교수들과 공부하면서, 현장에서 그 내용을 적용하는 실습을 합니다. 이렇게 현장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단순히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더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교생 실습과정에서는 학과목들은 수강하지 않고 학기 내내 현장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이미 두 학기의 인턴 과정을 통해 배움을 실천에 옮기는 훈련을 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숙향: 그렇게 수준 높은 현장 실습을 위해서는 실습이 가능한 학교와 학급 교사의 도움이 필요할텐데 어떻게 협조를 얻고 계신가요?**

**Karen:**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단 한 곳의 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실습을 위한 협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육청과의 관계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들의 협조를 얻어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교수들이 그 학교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봉사를 시작했지요. 심지어 점심시간에 급식 봉사까지도 했으니까요. 그 학교를 돕고 함께하기 위한 일을 찾아 나섰고, 교사 교육도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학교와의 관계 정립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은 후에 점차 관계하는 학교들을 늘려갈 수 있었어요. 이제는 7-8개의 교육청 관할 학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습 현장을 제공하면서, 학교측은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수들이 옛날만큼 학교 현장에 많이 나가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학교측에서 우리 학생들이 오기를 바르게 되었지요. 무엇보다 장애우를 위한 통합 교육으로 늘어난 교사들의 업무량을 우리 학생들이 크게 경감시키는데 일조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질적인 훈련을 위해 노

력해 온만큼, 현장에서 실제적이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교수들도 현장에 나가 학생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살피고 평가 방법, 수준별 수업 진행, 문제 행동 교정들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절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영주: 협력학교들은 모두 기독교학교들인가요?**

**Karen:** 모두 일반 공립학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곳에서 기독교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적 통합이 이루어진 수업을 시연하기도 하고, 장애 아동이나 특수교사들과의 관계 가운데 기독교인다운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 등 삶의 태도를 통해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교육 인턴십 과정은 좋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대학들도 인턴십 과정을 제공하고 있지만, 협력 학교들에서 우리 학생들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숙향:** 한국의 특수교육 전공 학생들은 일정 기간 봉사나 참관을 해야 하고, 한 달간의 강도 높은 교생 실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Karen:** 저희는 학생들이 짧은 기간 동안 특정 교실에 있는 장애 학생 한 명에게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턴 과정에서 전체적인 학교 시스템에 익숙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전문이지만, 그 학교의 특수교사뿐 아니라, 일반 학급의 교사들, 교장, 행정직원들을 도우면서 일도 배우고 유대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급을 담당하기 전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학교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생실습 기간에는 담당하는 과목을 점차 늘려가며, 담당 학급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수교사들과 협력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담임교사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특수교사들이 자신의 학급에 있는 장애우 학생에게 필요한 도움만 주고 빨리 나가주길 바라기도 합니다. 특수교사들을 단순한 보조 정도로 인식하고 함께 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교사들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두 교사는 팀티칭, 상호 협력 작업, 상호 보조 활동을 통해 교실에서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교사 모두 자신의 전문 영역과 지식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박영주:** 일반 학급 교사와 특수교사들간의 협력을 위해 어떤 교육들을 해오셨나요?

**Karen:** 코티칭(Co-teaching) 혹은 협동적 교수학습 전략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이 전략들을 실제로 적용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실제로 학교에 가서 일반 담임교사들과 협력하여 수업을 하도록 과제를 부여하지요. 일반교사들은 안 그래도 바쁘는데 뭔가 다른 시도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습 교생이 과제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면 대부분 협조하더군요. 또한 학생들이 실습하는 학교에 최근 연구자료나 경험 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경력은 많지만 자신의 경험에만 의지하여 가르칠 뿐 최근 교육계의 연구 경향이나 자료에는 어두운 교사들을 이런 식으로 돕는 겁니다. 인턴십 과정은 이런 의미에서 단순히 가르치는 것 이상의 효과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교사들 중에는 교수들에게 직접 배우는 것보다, 인턴 학생들로부터의 정보들을 더 선호하고 마음을 여는 사람들도 많습



니다. 인턴이던 학생들이 그 학교의 교사로 채용되어 일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하여 선배가 후배들을 인턴으로 받아 서로 배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인근에 자폐 학생들을 위한 Watson School이 있는데, 저희 대학 출신이 70-80%입니다. 졸업생들이 일도 잘하고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남다른 교직 생활을 해나가면서 학교에서 저희 대학이 갖는 영향력뿐 아니라 각자가 기독교인으로서 미치는 영향력도 커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관찰되고 있다는 인식은 조금 무섭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인 우리가 관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언제나 기독교인답게 삶으로써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박영주:** 부모 교육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교사 지망생과, 현직 교사에 대한 교육과 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부모 교육 역시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됩니까?

**Karen:** 솔직히 그 부분은 저희 대학이나 제가 더 발전시켜야 할 영역입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와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군요. 장애우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저렇게 훈련하겠다는 학교 프로그램들은 많고 홍보도 되고 있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하라는 식의 교육은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학교 근처에 있는 특수교육 지원단체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우 가정과 부모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대학 수준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뚜렷한 활동이나 교육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고 발전시켜야 하겠지요.

**박영주:** 장애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기독교적 관점에서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Karen:**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부여받았지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한몸의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지체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지요. 밖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특별한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장애우 학생들도 그 역할이 잘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한몸의 지체이며 소중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종종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무슨 역할과 기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려면 추가적 도움과 시간,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들은 우리 만큼이나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종종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감동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래서 불행해 보이지만, 그들은 다른 관점으로 삶을 봅니다. 따라서 장애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자녀들의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제한적인 상황이라도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일본에서 다운증후군 아들을 둔 엄마를 만났어요. 그녀는 아들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많이 내고 남을 방해하기 때문에, 혼자 돌보면서 집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잘못된 시각으로 아들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관점을 바꾸어 아들의 눈으로 세상을,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아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정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안심하고 장애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곳,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된 것이지요. 장애우들이 남을 방해한다고 지레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특별한 기쁨도 있다는 사실을 기독교인 공동체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김정호:** 개발도상국가의 특수교사들과도 협력하며 그들을 도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Karen:** 기회가 된다면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요즘 피츠버그의 한 단체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자폐 어린이들을 돕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 단체의 한 여의사는 베이징에서 자폐아를 위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중국 정부의 요청으로 자폐 어린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고 있습니다. 10년 내에 100명 이상을 훈련해서 이들이 다시 특수교사들을 재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것이 현재 제가 유일하게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활동입니다. 지난 학기에 그 단체에 속한 분들을 저희 대학에서 교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시작에 불과하지만 점차 시간과 영역을 늘려가며 봉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은퇴를 하면 더욱 봉사할 여유가 많아지겠죠?

**김정호:** 제가 관찰한 바로는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의 교육 시스템에서 가장 약한 영역이 바로 특수교육 분야였습니다. 저는 캄보디아를 여러 번 방문하였는데 최근 만난 현지 교육학 교수가 말하길, 가장 시급하게 교육적 대책이 필요한 영역이 바로 장애우들을 위한 특수교육이며, 여기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하더라고요. 제가 방문한 개발도상국가들의 교실에도 장애우들이 있었는데, 거의 방치되어 있었어요.

**Karen:** 미국도 특수교육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아요. 처음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때가 1975년이니까요. 그러니 지금의 개발도상국들도 머지 않아 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통합적인 특수교육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적절하게 훈련 받은 사람들이 나서서 도와주기만 한다면, 훨씬 단기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박영주: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가장 강조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Karen:** 교사들의 기술과 지식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식 없는 기술만으로는 날마다 예상치 못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는 교육 현장에서 올바르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자폐어린이들을 돕는 단체에서는 당장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저는 왜 그런 기술들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적인 교육 역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지만, 그것 이상으로 왜 우리가 그것을 하는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기술적인 발전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기독교사로서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생들을 대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특별한 상황에서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식, 기술, 그리고 장애우 학생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 이 모두가 중요한 교육 영역이지요. 해야 할 일이 많긴 합니다만 반드시 필요한 교육 훈련입니다.

**박영주: 처음으로 장애우 학생을 통합 학급에서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에게 조언 한 마디 해주시겠습니까?**

**Karen:**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선 전체 학생들을 위한 수업계획을 세우고, 다만 한 가지라도 장애우 학생 수준에 맞도록 재조정하는 계획을 세우라고요. 모든 학생들에게 별도의 규칙을 세울 필요는 없어요. 우선 전체 학생들을 위해 일반적인 규칙을 설정하고, 장애우 학생에게 적절하지 않은 경우 약간씩 조정하면 됩니다. 학과목에 대한 학습 지도 방법도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안에서 수준별로 좁혀 나가는 방식을 취하라고 가르칩니다. 행동 수정 영역에서도, 우선은 일반적인 접근을 시도하면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수준으로 좁혀 가야 합니다. 문제 행동 학생이 장애우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 학생이 문제 행동을 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 행동 수정을 위한 구조를 마련해 주어야 할 때도 있지요. 예를 들어 수업 중에 연필을 깎기 위해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허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우들의 경우, 한 번 허락하면 다시 자리에 앉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요. 이럴 때 다른 학생과는 다른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 번에 세 개의 연필을 책상에 놓고, 다른 연필로 바꾸어 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교사들은 특정 장애 학생에게 맞는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학급 운영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들의 문제 행동



이 아니라 긍정적인 행동에 반응을 보이고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학생들이 모범적인 행동은 그냥 지나치고 문제에만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요. 따라서 어떤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는 한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사들은 문제 행동을 교정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긍정적인 행동을 빨리 포착하고 이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공허한 칭찬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학생을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계속 노력하도록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또 학생들이 나름의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을 표시해 줌으로써 그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사들은 정보 전달자들이 아니라, 학생들의 안내자이고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지식뿐 아니라, 전인적으로 발전하도록 돕기 위해 교실에 있는 사람들입니



다. 장애우 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훈련이 필요하겠지요.

**박영주:** 특수교사이자 교수로서 한국 교사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Karen:**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 교사들은 현장에 나가기 전까지 가능한 많은 것을 배우고, 현장에 나가서도 지속적으로 배우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 현장은 날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경력이 오래된 교사들 중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정보와 지식, 기술을 연마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이숙향:** 저는 교사들이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면 합니다. 학생뿐 아니라 부모, 동료교사들과의 관계 말입니다. 일반 학급 교사들은 특수교사들을 그 학급의 장애우 학생들만 도와주고 나가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쉬운데, 특수교사들이 장애우 학생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음을 인식한다면 그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비장애우 학생들이 장애우 학생들에게도 마음을 열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특수교사들이 장애우 학부모들로 인해 상처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각자의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애썼으면 합니다.

**Karen:** 네,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장점뿐 아니라 약점까지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장점만큼이나 약점도 많다는 것, 우리는 모두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박영주:** 오늘 인터뷰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